

문화유적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유적관리의 개념과 계획수립과정을 중심으로 -

한 상 우 *

목 차

- I. 머리말
- II. 유적관리의 기본개념
 - 1. 유적관리의 개념과 원칙
 - 2. 유적보존과 활용의 기본방향
- III. 유적관리계획 수립
 - 1. 유적의 확인과 이해
 - 2. 유적의 평가
 - 3. 유적관리 정책 수립
 - 4. 실천방안 수립과 모니터링
- IV. 맺음말

〈 요약 〉

이 논문은 문화유적 관리를 위한 기본개념의 이해, 그리고 계획 수립의 여러 개별과정과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이론과 고려사항에 대한 제안과 검토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유적 관리계획의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 효과적인 문화유적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서는 서구의 문화유적 관리의 개념과 이론의 적용과 더불어 우리의 문화유적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그 속에 내재된 비물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유적의 원형보존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유적 기능의 보존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문화유적이 가지는 여러 가지 교육적 그리고 문화관광의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함도 큰 중요성을 지닌다. 이는 문화유적의 보존은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보호하여 유지하는 것이며 원형보존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유적 관리계획은 대상 유적의 확인(identification), 유적의 평가(assessment), 유적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design of management policy), 유적관리를 위한 실천방안 수립(design of management practice),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의 평가와 보완을 위한 모니터링 단계(management monitoring system for evaluation and revision of the plan) 등의 일련의 중요한 과정들을 거쳐 수립된다. 이러한 관리계획 수립의 각 과정은 신중하게 계획되어지고 철저히 실천되어야 완성도가 높은 종합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유적의 확인과정에서부터 유적의 평가, 정책 수립, 실천방안 수립, 그리고 모니터링에 이르는 유적 관리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적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소위, '한국문화유적관리준칙'을 시급히 마련하여, 우리 문화유적의 고유한 특징과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에 맞는 기준과 개념, 그리고 실천 체계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문화유적, 보존, 문화재관리, 문화재정책, 해석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문화박사

(접수일 : 2005. 4. 21, 심사일 : 2005. 5. 21, 심사완료일 : 2005. 6. 4)

I. 머리말

최근 문화유적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많은 관심이 나타나고, 또한 이러한 문화유적을 대중교육과 문화관광 등의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전국 또는 지방단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유적의 보존과 활용은 재정적 여건, 기술적인 요구조건, 담당 전문인력, 문화유적의 성격과 특성, 그리고 유적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유적이 가지는 모든 가치를 영속적으로 보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목적으로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하게끔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유적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과 그 세부 실천방안에 대한 철저한 연구 없이 이루어지는 문화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모든 행위는 오히려 문화유적의 원형을 파괴하고 문화유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와 중요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며, 의도하는 유적의 다양한 활용목적 을 달성할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에 산재한 문화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왔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들이 지역 단위 또는 개별 유적 단위에서 수립되어져 왔다. 이러한 계획과 방안들이 의도된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과 실천방안의 마련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로서, 특정 문화유적의 관리 또는 정비계획의 수립에는 해당 유적의 성격과 상태를 명확히 규명할 해당분야의 전문가, 관리 담당주체, 현지 주민, 그리고 유적의 보존과 활용 성격에 맞는 여러 학문 분야의 전문가 등이 모두 함께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유적조사 담당자만의 참여와 주관적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립된 관리계획은 결국 그 타당성이나 실제 효용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게 됨이 분명하다. 또한 대상 유적의 철저한 이해와 조사연구를 통한 중장기적인 종합 관리계획의 수립과 이 종합계획안에서 체계적인 유적의 보존과 복원, 또는 관광자원화에 대한 방안이 서로 유기적으로 계획되고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중장기적인 종합 관리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유적복원이나 관광자원화에 대한 정책이 행정적으로 먼저 만들어지고 이를 위하여 유적의 조사가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화유적 관리의 부정적인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1) 이 논문에서 문화유적 관리라는 용어는 문화유적의 보존과 보호, 그리고 활용에 관련되는 모든 다양한 제반활동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문화유적이라는 용어는 심미적, 역사적, 학문적,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유적을 포괄하는 용어이나 이 논문에서는 역사유적 또는 고고유적, 그리고 전통건축물유적을 주 논의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하지만 내용의 전개상 필요한 경우 기타 성격의 문화유적도 함께 논의됨을 먼저 밝힌다.

현재까지 고고·역사유적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유적에 관련해서 많은 종합 관리계획 또는 정비·복원계획들이²⁾ 만들어졌지만, 문화유적 관리계획안 수립의 과정이나 그 방법상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고찰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³⁾.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문화유적 관리를 위한 기본개념의 이해, 그리고 계획 수립의 여러 개별과정과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이론과 고려사항에 대한 제안과 검토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화유적 관리계획의 수립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개별 문화유적의 성격과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특정한 유적의 상황을 조건으로 한 특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여 문화유적 관리계획 수립의 과정과 방법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유적관리의 기본개념

1. 유적관리의 개념과 원리

문화유적 관리의 목표는 대상 유적의 자연적 그리고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여 유적의 가치와 중요성을 영속적으로 보존하고 궁극적으로 유적을 문화관광, 학문적인 연구, 사회문화 발달, 그리고 공공교육 등의 생산적인 목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문화유적 관리는 우선 유적의 보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한 이론적인 접근과 기술적인 방법 등을 필요로 한다.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유네스코와 국제유적기념물위원회(ICOMOS)와 같은 문화유산 관련 국제적인 기구와 단체들이 문화유적 보존과 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협약과 권고문, 그리고 보존헌장들을 채택하여 기본적인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적인 협약과 권고문, 그리고 보존헌장들에 담겨있는 문화유적 관리에 관한 기본개념과 원리들은 실질적으로 물질문화를 강조하는 서구 문화관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현재의 문화유적 관리의 개념과 기본적인 이론은 유적의 물질환경의 급속한 파괴와 훼손

2)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2004. 『광주 분원리 도요지 복원·보존을 위한 장기 종합 마스트플랜』, 홍성근, 충청남도문화역사원, 2004.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 등이 최근에 수립된 관리계획들의 한 예들이다.

3) 일부 예로, 인제대학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2000. 『봉황대유적과 대성동고분군의 정비 방안연구』에서 유적의 정비계획안 수립의 과정이나 방법상의 고려점을 일부 다루고 있으며 Han, Sangwoo, 2001.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in South Korea, Unpublished Ph.D.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에서 일부 상기의 내용을 간략히 다루고 있다.

에 대응하기 위하여 20세기 초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국가에서 먼저 대두되었다⁴⁾. 따라서 서구의 문화재관리의 접근방식은 주로 물질환경의 보존, 즉 유적의 원형보존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근거에는 서구국가에서의 문화적 연속성에 대한 강조를 말할 수 있다. 유럽의 계몽시기부터, 문화적 연속성에 대한 관심은 고건축물, 기념물, 정원, 그리고 다른 물질적인 표현물 등 물질문화의 구체적인 흔적, 즉 문화유적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물질문화의 연속성에 대한 관심은 비서구국가에서의 정신적 측면의 연속성에 대한 상대적인 강조와는 많이 다른 것이다⁵⁾. 이는 문화유적 관리의 기본적인 개념의 성립단계에서부터 문화유적을 보는 관점의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국제유적기념물위원회(ICOMOS)의 베니스헌장(Venice Charter)은 문화적 대상을 바라볼 때 그것이 가지는 물질적인 면을 강조하는 서구의 관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⁶⁾. 1964년에 채택된 베니스헌장은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리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지금까지 서구는 물론 대부분의 비서구국가에서도 적용되어 각 국의 문화유적 관리와 보존의 기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베니스헌장으로 대변되는 유럽이나 서구의 유적 보존에 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대상물의 현상을 훼손없이 원형보존하여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인 권위와 진정성(Authenticity)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유적 보존에 대한 서구의 기본적인 개념은 비서구국가의 상황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비니(Denis Byrne)는 문화유적의 보존에 있어서 서구의 물질적 연속성에 반하여 다른 비서구적인 문화전통을 가지는 나라, 예로서 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사회에서의 문화유적에 대한 정신적인 연속성의 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준다⁷⁾. 그는 중국이나 일본, 태국 등지에서 그 나라의 중요한 문화재로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많은 종교적 전통 건물들이 그 안에 깃들여 있는 정신적 가치 또는 신령성과 종교적 관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정기적으로 의도적으로 새로이 개조되거나 완전히 새로이 세워지는 사례⁸⁾를 예를 들어 이들 지역에서의 문화유적 관리에 있어서 문화유적이 가지는 정신적 연속성, 그리고 문화유적이 그 지역사회 안에서 가지는 사회적 가치가 어떻게 강조되어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있다.

-
- 4) Cleere, H.F., 1989. Introduction: the rationale of archaeological heritage management. *Archaeological Heritage Management in the World*(Henry Cleere,ed.) (London: Unwin Hyman), 1-19; Sullivan, Sharon, 1993. Conservation Policy Delivery. *Cultural heritage in Asia and the Pacific: Conservation and Policy: Proceedings of a Symposium held in Honolulu, Hawaii, September 8-13, 1991*, (G.H. Mac Lean,ed.) (Marina del Rey: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5-26.
- 5) Byrne, Denis, 1991. Western Hegemony in Archaeological Heritage Management. *History and Anthropology* 5: 269-276; Cleere, H.F., 1989. *op.cit.* (주 4) 1-19; Sullivan, Sharon, 1993. *op.cit.* (주 4) 15-26.
- 6) ICOMOS, The Venice Charter: International Charter for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Monuments and Sites 참고.
- 7) Byrne, Denis, 1991. *op. cit.* (주 5) 274-275.
- 8) Byrne, Davis, 2004. Chartering Heritage in Asia's Postmodern World, GCI Newsletter 192

하지만 최근까지 서구의 문화유적 관리의 개념과 원리들이 그대로 많은 비서구국가들의 문화유적 관리에 이러한 개념적인 차이에 대한 고려없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⁹⁾. 한 예로, 2002년 중국 ICOMOS 위원회는 문화유적의 보호를 위하여 ‘중국문화고적보호준칙’을 채택하여 중국의 문화유적 관리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기본개념에 있어서는 베니스헌장의 중심개념이 그대로 많이 반영되었다¹⁰⁾. 엔도로 (Webber Ndoro)¹¹⁾는 현 아프리카의 문화유산 관리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구의 문화유적 관리 개념이 아프리카의 다양한 문화적 양상에 대한 고려없이 그대로 적용되어 문화유적이 가지는 정신적 그리고 종교적 의미, 또한 그 지역민과의 유대성이 훼손되어 지역민이 그 문화유적으로부터 유리되고, 따라서 올바른 문화유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신적인 또는 비물질적인 가치 또는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는 문화유적의 경우는 서구의 문화유적 보존과 관리의 개념과 기본적인 이론들이 큰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비물질적인 가치 또는 정신적인 가치와 물질적 측면의 중요성이 결합되는 경우 서구의 개념과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비서구국가에서는 효과적인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유적의 물질적인 면의 보호와 보존을 강조하는 서구의 개념과 이론을 새롭게 변용하여 자국의 문화유산이 가지는 고유의 가치와 그 속에 내재된 무형의 의미, 문화유산과 주변 환경과의 관련, 그리고 문화유산과 그와 관련된 사람과의 의미와 관계성의 보존을 강조하는 새로운 개념과 이론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반영한 대표적인 것이 1979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채택한 버라헌장(the Burra Charter)¹²⁾과 1992년에 뉴질랜드에서 채택한 문화유적 보존을 위한 헌장(Charter for the Conservation of Place of Cultural Heritage Value)이다. 실례로, 버라헌장은 베니스헌장의 개념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리 상황에 잘 맞지 않다는 인식하에 1979년 남부 오스트레일리아의 버라(Burra)라는 오래된 폐광도 시에서 오스트레일리아 ICOMOS 관계자들이 모여 오스트레일리아의 상황에 맞는 문화유적의 보존을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것이다. 즉,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의 문화 등 다

http://www.getty.edu/conservation/publications/newletter/19_2/news_in_con1.html, 대표적인 예로 일본에서의 式年造替 라는 제도가 있다. 이세신궁의 경우 20년에 한번씩 새로 지워진다. 즉 신위만이 원래의 것이고 건축물은 원래의 양식을 따르기는 하지만 완전히 신 재료로 다시 지어지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이루어진다. 김왕직, 이상해, 2002, 「목조건조물문화재의 보존 이론에 관한 연구-일본 건조물문화재의 수리이론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한국건축역사학회) 11권 3호 통권 31호, 46.

9) Byrne, Davis, 2004, op.cit. (주 8).

10) 중국 ICOMOS 위원회, 2002년. “중국문화고적보호준칙(中國文物古跡保護準則)” 참고; Byrne, Davis, 2004, op.cit. (주 8); Luxen, Jean-Louis, 2004, Reflections on the Use of Heritage Charters and Conventions, GCI Newsletter 19.2, <http://www.getty.edu/conservation/publications/newletter/19.2/feature.html>.

11) Ndoro, Webber, 2001, Heritage Management in Africa, GCI Newsletter 16(3), http://www.getty.edu/conservation/publications/newsletters/16_3/new

12) 이 버라헌장은 1979년에 처음 채택된 후 1981년, 1988년, 그리고 1999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양한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문화유적이 가지는 정신적 가치를 그대로 보존하고, 유적의 원형보존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그 문화적 그리고 정신적 가치의 지속적인 보존 맥락 안에서 유적의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규정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리 개념의 대두와 함께, 베니스헌장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서구의 문화유적 보존과 관리의 기본적인 개념 역시 비서구국가에서 중요시되는 비물질적인 측면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4년에 채택된 나라도큐먼트(Nara Document on Authenticity)이다. 이 나라도큐먼트에서는 유적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토대인 진정성(Authenticity)을 인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문화유적이 가지는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가치를 포함함으로써 서구와 비서구지역에서의 문화적 관점의 차이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¹³⁾. 또한, 캐나다의 경우도 과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측면의 보호를 의미하여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장소의 의미와 문화적 또는 영적인 가치 등과 같은 사람과 장소와의 비물질적인 관련성을 보호하는 개념까지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현재의 문화유적 관리와 보존의 개념은 물질적 측면의 가치의 보존과 그 중요성의 인정과 함께 비물질적 또는 정신적 가치 측면을 함께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포괄적인 개념을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적용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문화유적 관리계획 수립에도 서구의 문화유적 관리의 개념과 이론의 적용과 더불어 우리의 문화유적이 가지는 고유한 특성과 문화유적이 가지는 비물질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유적보존과 활용의 기본방향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는 ‘원형보존을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 ‘개발과 보존의 조화’ ‘문화재 향유권 신장’에 두고 있으며, 이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재의 원형보존,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 등의 3개 핵심 정책과제와 18개의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¹⁵⁾. 이중, 사적의 예는 유적의 원형보존을 위한 유적의 조사와 정비, 보존, 그리고 역사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¹⁶⁾.

13) Byrne, Davis, 2004. op.cit. (주 8).; The Nara Document on Authenticity.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naradoc_eng.htm 참고.

14) Parks Canada,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the Conservation of Historic Places in Canada.
<http://parkscanada.pch.gc.ca/docs/pc/guide> 참고.

15) 문화재청, 2002.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문화재청, 41-171.

16) 그 중 원형보존을 위한 사적의 보존정비의 기본 추진방향으로 ▶문헌, 고증 등을 토대로 역사적·학술적인 가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유적 관리의 기본전제는 유적의 원형보존에 대한 강조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재관리 정책이 서구의 문화재관리 정책의 기본개념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이러한 강한 유적의 원형보존 개념의 적용은 유적의 물질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보존은 이를 수 있으나, 반대로 그 지역민이나 대상 주민들로부터 유적과의 관계를 서로 분리시키고, 유적의 보존이라는 것이 자신들의 삶과 동떨어진 거추장스러운 일이며 불필요한 일로 여기게 되는 부정적인 생각을 초래하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은 우선 유적의 보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의 부족과, 유적의 보존의 중요성과 이러한 보존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많은 혜택에 대한 대중교육과 홍보의 부재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유적의 보존과 관리가 그 이해당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¹⁸⁾. 한 예로, 안동 하회마을을 비롯한 전통 민속마을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유적의 원형보존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의 현실적인 삶의 충돌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¹⁹⁾.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유적의 원형보존이라는 개념과 더불어 유적의 기능의 보존이라는 개념이 대두되기도 한다²⁰⁾. 이는 유적이 가지는 원래의 실제적 또는 상징적 기능과 역할을 계속 유지하고 관련 주민들과 유적간의 의미를 영속적으로 유지 보존하려는 개념으로 유적의 원형보존이라는 개념과 함께 유적의 보존정책의 기본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는 유적이 과거의 물질적 자취로 남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능동적으로 기능하고 사회문화의 발전과 문화의식을 일깨우는 하나의 유용한 도구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과 역사문화의 생생한 체험과 교육의 장으로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적의 보존과 개발이라는 두 가지 명제는 계속적으로 서로 갈등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있어서 해결하여야 할 하나의 현안이라고 할 수

치에 부합되게 보존·정비 추진 ▶선사유적, 성곽, 고분 등 유형별로 특성화되게 보존·정비하되 활용측면 적극 고려 ▶사적의 보존·정비는 유적의 보존상태와 주변 역사문화환경·자연환경 등을 고려 추진 ▶문화권 유적 및 주요 사적의 단위사적별 세부 정비계획은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수립하되, 주요 유적을 집중적으로 정비 ▶일제 강점기에 훼손·변형된 조선왕궁과 궁·능의 전통조경을 원형대로 복원·정비 하여 민족의 정기를 회복하고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재청, 2002, 『앞책』(주 15) 70.

17) Han, Sangwoo, 2001. op. cit. (주 3) 118.

18) 한 예로 2005년 3월 29일 연합뉴스(인터넷판)는 최근 성균관대의 동양철학학과 학생들이 옛날 유생들의 생활상을 재현하는 기숙공간으로 사용되어온 사적 제143호인 문묘의 양현재 건물의 보존관리상의 문제로 기숙생들을 퇴소시키려는 관리단체인 종로구청의 움직임에 기숙생과 학교측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종로구청측은 양현재가 수십년간 학생들 기숙사로 사용되면서 건물자체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도 없어 퇴거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학생들과 학교측은 양현재에서 생활하는 자체가 문화재의 명맥을 이어가는 일이자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퇴거조치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19) 한국관광연구원, 2001, 『고가·종택·전통마을의 보존적 관광자원화 방안』, (서울:한국관광연구원) 22.

20) Han, Sangwoo, 2001. op.cit. (주 3) 119.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상충되는 명제들의 타협점이 바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또는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는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의 '인간 환경에 관한 회의'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으로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²¹⁾. 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환경과 사회발전에 모두 적용되는 용어로,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구정상회의에서의 관심은 이전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문화유산을 포함하는 사회적 문제와 발전과정에 모아졌다²²⁾. 문화유산과 지속가능한 개발은 상호 밀접히 연결되는 두 가지 개념들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문화유산의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화유산을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보존 관리하는 일은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일이며 지속가능성의 원리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의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와 함께 열린 'World Heritage in Africa and Sustainable development' 회의에서는 문화유산의 관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향상을 위한 중요한 도구임을 천명하였고, 유산관리의 새로운 방향은 경제개발, 인권의 신장, 빈곤의 경감, 지속가능성, 그리고 교육에 관심이 모아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²³⁾. 또한 정체성과 문화적 궁지의 회복은 유산의 관리에 일조를 한다는 사실과 전통적인 문화유적 관리방법의 유용성이 새로이 인정받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도 영향을 미쳐 기본개념에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과거의 기본개념이었던 '이 문화유산을 어떻게 손상없이 원형보존 하느냐' 에서 '이 문화유산의 무엇을 평가하느냐' 또는 '그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잘 보존 하느냐' 하는 문제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²⁴⁾.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경제적 개발은 상호 대칭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동반자 관계라는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존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 활용은 오히려 경제적 효과를 가져와 해당지역과 지역민의 경제적 이익과 더불어 지역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져온다는 점이다²⁵⁾. 한 예로, 영국의 해드리안 성벽(Hadrian's Wall) 세계유산의 관리계획에는 이 유적의 보존과 적극적 활용으로 지역의 경

21) 이후 1987년 유엔의 후원을 받은 Brundtland Commission이 펴낸 Our Common Future 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가 광범히 하게 보급되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를 "development that meets present needs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of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라고 정의하고 있다.

22) United Nations, 2002. Johannesburg Earth Summit 2002:Key outcomes of the Summit, www.johannesburgsummit.org.

23) The Johannesburg Declaration on World Heritage in Africa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002

24) NSW Heritage Office, 2004. *Heritage & Sustainability: A Discussion Paper*, NSW Heritage Office, Australia, 11.

25) 오창섭, 2001. 「경주시 고도 보존과 주민 이해조정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13(3), 207.

제적 이득과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함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²⁶⁾.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의 관리의 기본전제에 있어서 문화유산의 원형보존에 대한 생각은 활용이라는 측면보다 우선시되고 강조되어온 것이 사실이다²⁷⁾. 문화유산의 보존은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보호하여 유지하는 것이며 원형보존은 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²⁸⁾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또한 유적보존을 바탕으로 유적이 가지는 교육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관광의 자원으로서의 가치도 적극적으로 활용함도 큰 중요성을 지닌다. 보존과 활용의 두 개념은 개별 문화유적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정책 수립시 반드시 모두 반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반영을 통하여 대상 문화유적이 가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

Ⅲ. 유적관리계획 수립

개별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리는 하나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며, 유적 보존과 활용에 관련되는 개별 실천계획들은 상호갈등 없이 하나의 종합적 관리계획 속에서 상호관련을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개별 유적의 관리계획은 국가 차원의 유적 관리정책 또는 보존계획과 상호연관성을 가지면서 신중히 수립되어야 한다. 유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은 체계적이고 조심스러운 일련의 계획수립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문화유적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문화유적 관리계획은 몇 단계의 과정을 순서적으로 거쳐 수립되어질 수 있다. 이 계획 수립 과정은 국가적인 또는 개별 유적의 여러 가지 특성과 배경에 의해 달리 구성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과정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버라헌장에서 제시한 일련의 과정들이²⁹⁾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버라헌장에서 제시한 일련의 계획 수립 과정은 미주대륙의 ICOMOS 회원국들의 모임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았다³⁰⁾. 또한 슬리

26) Hadrian's Wall World Heritage Site Management Plan 2002-2007.

http://accessibility.english.heritage.org.uk/filestone/conserving/pdf/hadrian_mgmt_plan.pdf 참고.

27) 한국관광연구원, 2001. 『앞책』(주 19), 10.

28)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2000. Values and Heritage Conservation.(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LA) 7.

29) 오스트레일리아 Burra Charter는 유적의 보존(관리)과정을 Identify place and Association, Gather and record information about the place sufficient to understand significance, Assess significance, Prepare a statement of significance, Identify obligations arising from significance, Gather information about other factors affecting the future of the place, Develop policy, Prepare a statement of policy, Manage place in accordance policy, 그리고 Monitor and review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은 유적관리 계획 수립과정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30) San Antonio Declaration. http://www.icomos.org/docs/san_antonio.html 참고.

반(Sharon Sullivan)³¹⁾과 메이슨(Randall Mason)³²⁾, 중국 ICOMOS 의 '중국문화고적보호준칙'³³⁾등이 문화유적의 관리계획 수립의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대표적인 중요 과정들을 정리하면 대상 유적의 확인 (identification), 유적의 평가 (assessment), 유적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design of management policy), 유적관리를 위한 실천방안 수립(design of management practice),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획의 평가와 보안을 위한 모니터링 단계 (management monitoring system for evaluation and revision of the plan) 의 순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다. 이러한 관리계획 수립의 각 과정은 신중하게 계획되어지고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계획과정을 거쳐 대상 문화유적의 성격과 중요성 내지는 가치, 그리고 유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 정책 수립과 그 실천방안 등 유적의 종합적 관리에서 대두되고 해결해야 할 모든 고려사항과 문제점들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완성도가 높은 종합적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유적의 확인과 이해

유적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먼저 대상 유적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완전한 이해가 필수적이다³⁴⁾. 유적의 이해를 위한 유적의 확인작업은 기존의 다양한 관련 문헌자료들과 직접적인 현지조사와 시·발굴 등 유적의 새로운 확인작업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우선, 유적의 현재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정확한 기록을 남겨야하며, 드러나 있지 않은 유구나 유적의 총체적 이해를 위하여 여러 가지 고고학적 조사 등을 통한 유적의 모든 면을 파악하려는 과정을 통해 유적의 물질적 자취를 모두 이해하여야 한다. 유적의 물질적 자취에 대한 철저한 이해없이 세워지는 관리계획은 그 완성도에 있어서 큰 문제를 안게 된다³⁵⁾. 더불어 여러 가지 관련 문헌과 기존의 여러 연구기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이 가지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철저한 이해도 필요한 사항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상 유적에 대한 학술조사나 연구내력, 그리고 유적의 보존이나 관리에 있어서의 기존에 이루어진 일이나 계획안 등 유적의 과거의 조사연구, 보존, 그리고 활용에 관계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적절한 자료수집과 확인이 요구된다.

이러한 유적의 물질적인 측면에 대한 정확한 자료의 수집과 확인 외에 유적이 가지는 비물

31) Sullivan, Sharon, 1993. op.cit. (주4) 21.

32) Mason, Randall. 2002. *Assessing Values in Conservation Planning: Methodological Issues and Choices*. *Assessing the Values of Cultural Heritage*(Marta de la Torre, ed.)(LA:Getty Conservation Institute).6.

33) 중국 ICOMOS 위원회 '중국문화고적보호준칙' 참고.

34) NSW Heritage Office, 2001. *Assessing Heritage Significance*. A NSW Heritage Manual update, Australia, 4.

35) 인제대학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2000. 『앞책』(주 3) 45-46쪽에서 고고유적의 경우 정확한 유적의 정비와 복원을 위해서는 유적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전면 발굴조사가 반드시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절적인 측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동반되어야 한다. 예로서, 유적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과 유적과의 상호관련성, 즉 장소성 내지는 특별한 정신적 또는 신앙적 의미, 또는 경제적 또는 기타의 이해관계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또한, 유적이 위치하는 지역의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료수집과 이해 역시 필요한 과정이다.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의 확인 작업은 여러 가지 기록이나 통계자료의 검토, 현지조사, 주민면담, 그리고 지역민의 공청회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구학적 통계 또는 지리적인 정보, 경제적인 활동과 여건에 대한 통계와 상황, 그리고 관광 관련 통계 등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관련 정보들이 모두 파악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문화유적 자체의 철저한 이해와 조사와 더불어 유적이 위치한 곳의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배경은 유적의 확인과정과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유적 중요성 평가와 정책 수립에 아주 중요한 자료로 이용된다.

유적의 확인작업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우선, 대상 유적의 관리계획을 위한 정확한 범위 또는 영역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요구된다. 하나의 유적은 주변 환경 또는 인접한 유적과의 자연·문화적 관련성 또는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련성 또는 연결성이 인위적으로 단절될 때 유적이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은 크게 줄어든다. 예로서 우리나라 전통 사찰이나 건축물 등의 경우 모두 주변의 환경과의 완벽한 조화 속에 존재한다. 이러한 주변 환경과의 조화 안에서 전통 사찰 또는 건축물들의 고유의 정적인 분위기와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유적의 관리계획의 수립시 유적자체의 보존과 관리만이 아니라 이러한 주변 환경, 즉 역사문화환경과의 조화를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며³⁶⁾ 관리계획상의 유적의 영역 설정시 해당 유적 외에 이러한 주변 환경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역 설정이 요구된다³⁷⁾. 여기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문제가 이와 관련된 지역민과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이다. 개인의 사유지가 유적의 보존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이들의 삶과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논의와 보상책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진 후에 계획 대상 영역을 확정하여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유적과 관련유물과의 관계이다. 많은 문화유적의 경우 관련된 유물의 존재를 대부분 상정할 수 있으며 특히, 고고유적의 경우, 발굴 등의 조사행위의 결과로 많은 유물이 회수되며 이 유물들에 대한 보존과 관리의 문제는 대상 유적의 관리계획 수립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관련유물은 유적의 성격과 그 가치를 드러내고 유적 활용의 목적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능한 한 관련 유적과 함께 보존, 관리되어야 한다. 즉, 유

36) 이영경, 민창기, 1998년. 「경관경험의 향상을 위한 문화·역사 지역의 경관계획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경주시 문화재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한국조경학회)26(2), 164.

37) 사적이나 기념물 등 지정된 유적인 경우 법제상 보호구역이 설정되나 이 역시 이러한 고려 하에 신축적인 적용이 요구된다.

물의 원지 보존의 원칙이 분명히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고고유적의 경우 출토유물은 대부분이 출토지와 떨어져 국립박물관이나 발굴기관의 수장시설에서 보존 관리되고 있으며 폐사지의 경우도 보존과 관리상의 이유로, 한 예로, 일부 석탑들은 그 원지에서 옮겨져 고고유물과 비슷한 상황에서 관리 보존되고 있다. 이러한 관련 유물의 원지에서의 분리 또는 원래의 존재 상태(context)에서의 분리는 그 가치와 중요성을 크게 감소시키는 일이 되기도 한다³⁸⁾. 이러한 관련유물들은 유적의 관리계획 수립시 모두 파악되고 가능한 원지에서 관리하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계획되어야 한다. 특히 유적 현장에 전시관이나 기타 방문객 관련 교육시설이 계획될 때 이 문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적의 확인과정에는 유적 주변의 지역민과 직·간접적으로 유적과 연결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³⁹⁾ 계획수립자들은 적절한 참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참여과정을 통하여 유적의 정확한 이해와 계획수립에 반드시 반영되고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의견 수렴 과정이 요구된다.

2. 유적의 평가

유적의 확인작업이 이루어진 후 유적이 가지는 모든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한 평가, 유적의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유적의 관리문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평가 과정들은 유적의 관리와 보존에 관한 정책의 수립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우선, 유적의 중요성 평가는 대상 유적의 보존과 관리에 대한 모든 행위를 결정하는 기본으로 유적 관리 계획 수립의 중요한 과정이다⁴¹⁾. 유적의 관리에 대한 방안에는 많은 대안이 있을 수 있으며 유적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평가는 이러한 방안의 강구와 해결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케르(Kerr, J. Sempler)는 유적의 중요성 평가를 문화유적이 우리 사회와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여기게 하는 유적의 속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⁴²⁾. 이러한 유적의 중요

38) NSW Heritage Office, 2001. op. cit.(주 34) 5; ICOMOS Charter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Archaeological Heritage 1990 article 6 참고.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e_archae.htm

39) San Antonio Declaration, attachment to the Declaration of San Antonio 참고.

http://www.icomos.org/docs/san_antonio.html

40) 중국 ICOMOS 위원회, 2002년. '중국문화유산보호기준(中國文物古跡保護準則)' 2장 9절-12절 참고; Mason, Randall, 2002. op.cit.(주 32) 6.

41) The World Bank, Environment Department, 1994. Cultural Heritage in Environmental Assess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Sourcebook Update, 8.

42) Kerr, James Sempler, 1985. *Establishing Cultural Significance?*. ACT Heritage Seminars, Canberra, Australia, 1.

성평가는 일부 특정인의 연구나 평가행위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대상 유적의 성격에 관련된 많은 학문적 영역의 전문가와 실제적인 유적 관리담당자, 그리고 지역민의 전체적인 참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많은 시간과 철저한 평가가 요구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유적의 중요성은 그 속에 내재된 여러 가지 가치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들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인은 유적의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잘 보존할지에 대한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 가치의 보존은 문화유적 관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⁴³⁾. 문화유적이 가지는 가치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라이프(Lipe, W.D.)는 문화재 또는 문화유적이 가지는 가치를 정보적(informational), 미학적(aesthetic), 경제적(economic), 그리고 연관적/상징적(associative/symbolic) 가치들로 설명하고 있으며⁴⁴⁾ 오스트레일리아의 버라헌장은 문화유적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미학적(aesthetic), 역사적(historic), 과학적(scientific), 그리고 사회적(social) 또는 영적(spiritual) 가치들로 분류하고 있다⁴⁵⁾. 또한 중국의 ‘중국문화유산보존기준(中國文物古跡保護準則)’에서는 유적이 가지는 가치를 역사적, 예술적, 그리고 과학적 가치들로 설명하고 있다⁴⁶⁾. 이처럼 유적이 가지는 가치들에 대한 분류는 나라별 또는 관련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는 사회나 역사, 또는 환경적인 관련성 안에서 가치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관점의 다양함에 기인한다. 한 예로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버라헌장에서는 가치의 분류에서 경제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경제적 가치를 사회적 그리고 역사적 가치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⁷⁾. 근래 영국의 English Heritage⁴⁸⁾는 유적의 가치를 문화적(cultural), 교육과 학문적(educational and academic), 경제적(economic), 자원적(resource), 오락적(recreational), 그리고 심미적(aesthetic) 가치들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 정의는 유적의 본질적인 가치 개념에 따른 일반적인 분류 정의와는 달리, 유적이 어떻게 이용되고 중요시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유적의 가치를 분류하여 유적의 관리와 보존 계획 수립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⁴⁹⁾

이러한 다양한 가치는 대상 유적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모두 나타나기도 하며 일부 특정한 성격의 가치만이 나타나기도 하다. 또한 유적의 특정 가치는 시대상황과 유적의 상태 변화에 따라 그 상대적인 중요성이 변화되기도 한다. 유적이 가지는 많은 가치들 중 특정 가치는 다

43)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2000, op.cit. (주 28) 7-8.

44) Lipe, W.D., 1984. Value and meaning in cultural resources. *Approaches to the archaeological heritage: a comparative study of world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ystem*(Cleere, 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1-11.

45) Australia ICOMOS Burra charter 참조.

46) 중국 ICOMOS 위원회가 2002년 제정한 ‘중국문화유산보존기준(中國文物古跡保護準則)’ 3절 참고.

47) Mason, Randall, 2002, op. cit. (주 32) 10.

48) English Heritage, 1997. *Sustaining the Historic Environment: New Perspectives on the future. English Heritage Discussion Document*.(London: English Heritage).

49) Mason, Randall, 2002, op. cit. (주 32) 10.

른 가치에 비해 상대적인 중요성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강조되기도 한다. 한편, 유적이 가지는 특정 가치는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의해 완전히 소멸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특정 유적이 가지는 가치를 고정된 절대가치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우며 유적에 대한 이해의 증가와 인위적인 선택의 과정, 또는 주어진 유적의 정보에 대한 제한이나 왜곡 등의 많은 요인들에 의해 유적의 상대적 그리고 절대적 가치는 항상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적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각 가치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유효성은 반드시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하며, 이 과정은 계속 진행형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결과는 유적 관리계획의 주기적인 수정에 반드시 반영되어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

유적 관리계획과 이를 위한 정책수립에 있어서 유적이 가지는 모든 가치들은 완전히 파악되고 바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특정 가치만이 유적의 중요성 평가에서 중시되어 반영되고 평가된다면 유적이 가지는 다른 가치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감소하고 보존과 관리 계획 수립시 관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유적의 진정한 가치를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유적 관리방안 수립에 있어서도 그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유적 관리계획 수립의 중요성과 목적이 유적이 가지는 모든 가치를 영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유적의 중요성평가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유적이 가지는 모든 가치와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유적의 중요성평가의 기본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차원은 유적의 중요성의 평가를 통하여 다른 유적들과의 상대적 중요성의 평가 내지는 그 중요도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의 문화유적은 상대적인 중요도에 따라 몇 가지 부류, 즉 예를 들어,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 지방적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 그리고 지역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류 평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과정은 유적의 보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평가와 더불어 유적의 지정 등의 관리 측면에서 신중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유적에 대한 사적 또는 시·도 기념물 등의 지정 분류도 이러한 유적의 중요성에 대한 상대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며, 그 중요성의 분류평가에 있어서 그 객관적 기준의 마련이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적의 중요성 평가에는 대상 유적이 가지는 자체적인 특정 가치들만이 아니라 그 문화유적이 위치한 지역 전체 그리고 다른 유적과의 학문적 또는 문화적 맥락 안에서의 특정 대상 유적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 한 예로서, 고고유적의 경우 그 유적 자체만의 중요성 외에 그 지역의 다른 고고유적들과의 학문적 연구의 틀 안에서 그 유적의 중요성이 올바르게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적의 중요성 평가에 있어서 가치 평가의 기준에 대한 문제는 많은 논란을 가져온다. 평가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개별 유적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역적인 차

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로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유적의 다양한 가치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미완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연 대상 유적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은 여전히 중요성 평가자의 주관에 많이 의존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이 사실이다. 문화유적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부에서는 경제적 평가 개념을 도입하여 유적의 중요도(문화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려는 방법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문화유적을 공공재화(public good)로 간주하여 표현선호법(Stated preference)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조건부 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또는 선택 모델법(Choice modelling)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유적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유적의 가치와 개발과 보존비용을 비교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⁵⁰⁾.

유적의 중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평가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과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큰 중요성을 가진다. 현재 대부분의 경우, 유적의 중요성의 평가에 있어서 일부 특정 외부 전문가들만의 참여에 의해 유적의 가치가 평가된다. 예를 들어, 대상 유적이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될 만큼의 큰 중요성을 가지는 경우, 그 가치는 확연히 잘 드러나 그 중요성에 대한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많은 문화유적들은 제한된 지방적 또는 지역적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경우, 유적이 가지는 일부 가치들은 그 평가자들의 유적에 대한 이해부족과 이해를 위한 지역적 관점의 부재로 인하여 유적이 가지는 지역적 중요성을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지역적 중요성은 국가적 또는 지방적 중요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외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으며 그 지역사회 외에서는 잘 인식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유적의 비물질적 가치를 평가할 때 이러한 문제는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유적의 중요성 평가과정에는 반드시 지역민의 의견반영과 적극적인 평가과정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적의 관리계획의 수립시 유적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는 유적의 확인작업에 서뿐만 아니라 유적의 중요성 또는 가치평가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이들이 유적의 가치를 느끼고 체험하는 실제적인 당사자들이며, 이들이 가지는 유적의 가치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모두 반영된 가운데서 어느 일방만의 관점이 반영되는 것을 배제하고 유적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적의 중요성 평가에서 유적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을 모두 파악하고 이들이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유적의 중요성평가에서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50) Rolfe, John and Jill Windle, 2003. Valuing the Protection of Aboriginal Cultural Heritage Sites, The Economic Record, 79, S85-S89.

유적의 중요성 평가과정에서는 유적의 물질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유적이 가지는 비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가치 또는 의미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서구의 관점에서 중요성의 평가는 물질적인 흔적과 그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지만 비서구국가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중요성 평가와 함께 유적의 감추어진 비물질적인 측면 즉, 유적과 그 지역민들과의 관계성, 장소성, 또는 신앙적 대상으로의 종교성 등이 또한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비서구국가들에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물질적인 측면의 가치와 함께 이러한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가치가 또한 강조되며 이러한 예는 서구의 유적보존 개념과는 상충하는 점이 있다. 유적의 관리계획은 이러한 물질적 그리고 비물질적 측면에서의 모든 가치들을 평가하고, 이를 보호하고 관리할 기본정책에 반드시 반영하고 실행할 적절한 대책들을 마련하여야 한다.

유적의 다양한 가치에 대한 평가의 마지막 결과물은 유적의 중요성을 명확히 나타내는 중요성 평가문(Statement of Significance) 라고 할 수 있다. 이 중요성 평가문의 기능은 유적의 보존이나 개발, 또는 관광객 관리 등을 위해 제시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통합하여 보여주고, 또한 향후 여러 가지 정책의 결정이나 평가에 기본이 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이 유적의 중요성 평가문의 작성은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유적의 관리계획의 수립시 일반화된 과정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 평가문의 작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형식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⁵²⁾ 우선, 평가문은 유적의 중요성 평가에서 드러난 모든 가치들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특정 가치를 다른 가치들보다 더욱 강조하거나 앞세우는 일은 가능한 배제하여야 한다. 즉, 특정 가치에 대한 강조는 실제적인 정책 수립시 다른 가치들에 대한 배려를 상대적으로 등한시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또 다른 필요내용은 해당 유적이 가지는 중요성이나 독창성에 대한 다른 유적들과의 상대적 평가이다. 이는 다른 유적들과의 상대적 평가를 통하여 유적의 보호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이나 유적의 중요성도 분류에 따른 지정 등의 법률적인 행위의 기본 평가를 위한 것이다.

유적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위한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하나의 과정은 유적의 현재의 물질적 잔존상태에 대한 평가이다. 이러한 평가는 유적의 현재의 상태에 대한 이해와 어떠한 보존과 관리조치들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유적의 상태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유적의 복원이나 기타 보존과 관리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안들이 도출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지상의 모든 관련 유구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지하의 매장유구에

51) Mason, Randall, 2002, op. cit. (주 32) 17.

52) Mason, Randall, 2002, op. cit. (주 32) 23.

53) Mason, Randall, 2002, op. cit. (주 32) 24.

대한 발굴조사를 필요로 한다⁵⁴⁾. 또한, 유구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훼손 정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유적의 보존조치 필요성에 대한 평가, 유적의 자연적 환경, 그리고 사회적 여건에 대한 이해 등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⁵⁵⁾.

유적의 평가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정이 유적의 관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태, 관련 법률, 상위 계획안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평가이다. 이를 위하여 대상 유적의 관리 주체, 관리능력, 현재의 유적의 교육적 활용, 유적의 관리와 보존에 관련되는 법률적 문제, 관련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 계획, 유적의 관리에 있어서의 고려사항,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과 보상 문제, 그리고 유적의 관리나 보존에 사용될 수 있는 재정자원 등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⁵⁶⁾.

3. 유적관리 정책 수립

유적의 중요성과 현 상태에 대한 이해와 평가를 바탕으로 한 유적관리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은 앞으로의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적의 보존과 활용정책은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적인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그리는 과정으로, 유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할 점과 현실적인 여러 가지 경제, 사회적인 배경에 대한 총체적인 고려하에 유적의 장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실천적인 것이어야 하며 인력, 자원, 그리고 기술적 문제들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대상 유적에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생각의 차이들을 이해하여야 가장 효과적인 장기적인 정책과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유적 관리와 보존을 위한 정책은 일반적으로 유적의 보존(conservation), 교육적 활용을 위한 해석(interpretation), 방문객 관리(visitor management), 문화관광(cultural tourism) 활성화, 그리고 기타 유적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부수적인 정책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본정책을 실현할 여러 가지 실천적인 전략을 요구한다⁵⁷⁾. 하지만 유적의 상황에 따라 특정 정책이 강조되어 다른 정책들이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현 유적의 상태가 과도한 방문객이나 기타의 원인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었거나 또는 훼손이 진행 중인 경우, 절대적인 유적의 물질적 보존을 위하여 유적의 교육적 활용이나 방문객 관리, 그리고 문화관

54) 인제대학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2000, 『앞책』(주 3) 45-46 참고.

55) 중국 ICOMOS 위원회, 2002년, 『앞글』(주 10) 주석 8번 참고.

56) 중국 ICOMOS 위원회, 2002년, 『앞글』(주 10) 주석 8번 참고; Mason, Randall, 2002, op. cit. (주 32) 6.

57) 한 예로, 최근에 수립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2004, 『광주 분원리 도요지 복원·보존을 위한 장기 종합 마스터 플랜』에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이 잘 수립되어 있다.

광 관련 정책들은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 이후 유적의 보존상황이 개선되는 경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지고 다른 정책의 수립이 요구될 수 있다.

유적의 보존정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유적의 활용정책은 서로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한 예로, 특정 유적을 문화관광이나 교육적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정책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방문객의 편의시설, 주차장, 교육시설 등 부가적인 시설과 환경을 유적이나 유적 주변에 새로이 만들어야 하나, 이러한 행위는 유적의 원래 환경보존과 유구의 보존이라는 명제에 서로 대칭될 수 있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정책간의 충돌과 갈등을 막기 위하여 개별 정책의 수립은 가능한 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유적이 가지는 가치들이 서로 대등한 중요성을 가지며 조화롭게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유적의 보존에 관한 정책은 유적의 현 상태를 보존하여 더 이상의 훼손이나 파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방안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유적은 자연적 그리고 인위적 위협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며⁵⁸⁾ 이러한 유적의 상태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서는 유적의 상태보존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가능한 배제시키고 유적의 상태를 안정화시키려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안들이 필요하다. 유적의 보존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 유적의 일상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라고 할 수 있다⁵⁹⁾. 유적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과 인위적인 파괴행위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유적의 훼손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유적의 보존행위의 필요성을 줄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성을 지닌다. 따라서 유적의 보존정책은 이러한 유적의 훼손이나 상태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유적의 보존정책에 있어서 명심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유적의 복원에 관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복원(restoration)이라는 용어는 유물이나 현재 남아있는 유구를 새로운 재료의 사용 없이 알려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복원이라는 용어를 보수(repair)나 재건(reconstruction) 등의 용어와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기보다는 유적이나 유구의 원래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행하여지는 모든 행위를 복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하고 있다. 이러한 복원행위는 대상물의 원래의 상태를 보여주고자 하는 교육적인 목적이나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한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존행위의 하나로 이루어

58) 자연적인 요인으로는 침식, 온도나 습도 등의 기후 변화, 홍수, 자연재해, 동결이나 해빙, 화재, 식물의 피해 등이 있으며 사람이 관련된 요인으로는 과도한 이용이나 방문, 훼손행위, 도굴, 현상변경행위, 부적절한 관리 행위, 환경오염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고고유적의 원상보존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9) 중국 ICOMOS 위원회, 2002. 「앞글」(주 10) 주석 10번 참고.

지기도 한다. 어느 경우든 유적의 복원 또는 재건 행위는 원래의 모습이 정확히 알려진 상태나 유적의 발굴이나 기타의 확인 작업에 의해 유적의 원형이 완전히 알려진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하며, 추측에 의한 또는 일부만의 자료에 의존한 복원이나 재건은 가능한 배제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여러 상황에 따라 추측이나 현재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복원 또는 재건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행위들이 유적의 교육적 활용과 학문적인 발전에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모든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전체적인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유적의 보존정책의 수립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앞서 언급한 유적의 기능의 보존 문제이다. 한 예로서, 전통건조물유적의 경우 가능한 사람과의 관계성이 유지되고 그 기능이 계속되게 관리함이 최선책이나, 여러 가지 인적 그리고 재정적인 여건의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건물의 보존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막거나 사람의 거주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수동적 보존행위는 오히려 건축물의 원래의 기능을 상실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가능한 그 원래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끔 보존관리 하는 것이 최선의 보존정책이 될 수 있다. 슬리반(Sharon Sullivan)은 유적의 전통적인 용도로의 지속적인 이용은 장기적인 보존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⁰⁾.

유적의 보존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 유적의 활용에 대한 정책 또한 큰 중요성을 지닌다. 이 중, 유적의 교육적 활용, 즉 해석(interpretation)에 대한 문제는 유적의 중요성을 유적 방문자들에게 전하여 유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유적 보존의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엘드리지(Don Aldridge)는 유적에 대한 해석을 '유적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유적보존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유적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⁶¹⁾. 해석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적에 대한 보존의식을 고취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⁶²⁾ 유적의 보존을 위한 과정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며 긍정적인 보존효과를 가져오는데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⁶³⁾.

이러한 유적의 해석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설명에 의한 것(demonstration)과 방문객 참여에 의한 것(participation)으로 구분된다. 설명은 메시지를 방문객들에게 직접 전

60) Sullivan, Sharon, 1993, op.cit (주 4) 24.

61) Aldridge, Don, 1989. How the Ship of Interpretation was Blown Off Course in the Tempest: Some Philosophical Thoughts. *Heritage Interpretation: The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Volume 1)*, (David L. Uzzell, ed.) (London and New York: Belhaven Press) 64.

62) Uzzell, David L, 1989. The Hot Interpretation of War and Conflict. *Heritage Interpretation: The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Volume 1)*, (David L. Uzzell, ed.) (London and New York: Belhaven Press) 35.

63) ICOMOS, 2004. ICOMOS Ename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Third Draft, Preamble 참고.

달하는 것이며 참여는 방문객과 함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⁴). 어느 경우든 이를 위하여 책자, 사인, 탐방로, 패널, 방문객센터, 시청각장치, 전시, 설명회, 현장시현, 체험교육 등의 여러 가지 전달방법을 사용하여 원하는 교육목적을 달성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해석은 유적이 가지는 특정 중요성이나 가치만을 강조하여 방문객들에게 전달하기 보다는 유적의 문화적 그리고 자연 환경적 중요성의 모든 면을 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⁶⁵). 효과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유적의 중요성과 내재된 모든 가치들, 이용 가능한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 방문객에 대한 분석 등을 고려하여 해석의 주제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전달기법과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적 메시지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요구된다⁶⁶). 이러한 해석에 대한 교육적 효과는 방문객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른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유적의 방문객에 대한 관리 문제는 유적의 보존관리 정책의 수립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방문객의 효과적인 관리는 유적의 보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적의 활용을 위한 기본전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맥아더(Simon McArthur)와 홀(Michael Hall)의 정의에 따르면 방문객 관리는 '방문객의 체험의 질을 극대화시키면서도 유적 방문에 의해 초래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의 방문객의 관리'를 의미한다⁶⁷). 방문객 관리는 유적과 이를 방문하는 방문객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유적의 방문객 수용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초로 한다. 유적의 훼손과 부정적인 영향의 많은 부분은 유적의 수용력(Accommodation Capacity) 이상의 과도한 방문객의 수와 이들에 의한 남용행위에 의해 주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유적의 수용력 평가는 유적에 대한 기본적인 환경여건, 유적의 현 보존상태, 예상 방문자수, 그리고 방문객의 기대행위 등을 종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방문객 관리 정책은 유적의 상태를 훼손없이 보호하고 방문객에게는 유적의 가치를 교육하고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문객 관리 전략 등이 필요하며, 방문객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탐방로 또는 펜스 등의 방문객 통제시설의 설치, 휴게·주차 편의시설, 그리고 다양한 교육적 해석(interpretation) 프로그램의 설치 운영 등이 요구된다.

64) McArthur, Simon and C. Michael Hall, 1993, Visitor Management and Interpretation at Heritage Sites, *Heritage Management in New Zealand and Australia: Visitor Management, Interpretation and Marketing*, (C. Michael Hall and Simon McArthur, 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7.

65) ICOMOS, 2004, ICOMOS Ename Charter for the Interpret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Third Draft, Principle 3: Context and Setting 참고.

66) Han, Sangwoo, 2001, op.cit. (주 3) 135.

67) McArthur, Simon and C. Michael Hall, 1993, op. cit. (주 64) 18.

4. 실천방안 수립과 모니터링

문화유적의 관리 정책은 상세한 실행계획에 의한 세부 실천방안에 의해 실행되어진다. 이를 위한 세부 실천방안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과 관리 측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문화유적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제반 정책에 따라 각기 그에 따른 목표설정 그리고 이를 위한 세부 실천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은 경비조달 가능성, 기술적 가능성과 담당 인적자원, 세부 실천과정, 시간적 여유, 그리고 실천을 위한 관리체계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실천방안 등은 그 실천을 위한 시간적 계획과 긴급성에 따라 단기적, 중장기적 실천방안으로 나누어 추진될 수 있다. 유적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실천방안으로는 유적의 유지와 보호 방안, 유적조사 또는 고고학적 발굴조사 방안, 유적의 보존 방안, 유적의 해석을 위한 방안, 방문객 관리 방안, 유적의 환경보존 방안, 유적의 디자인 방안,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 그리고 기타 등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들이 서로 갈등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이 실제적으로 행하여진 후, 그 효과와 유용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검토나 방문객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등이 행하여져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유적의 관리계획의 수정이나 보완과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모니터링은 유적관리 계획의 중요한 한 과정으로 철저히 실천되어야 한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문화유적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본개념과 계획수립의 여러 과정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러한 과정들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들로, 각 과정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통하여서만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유적의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질 수 있다. 앞에서의 각 과정의 이해를 통해 문화유적의 관리계획의 수립시 관련 주민을 비롯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각 과정에 대한 직접 참여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이 많이 언급되었다. 지금까지 문화유적의 관리계획 수립시 주민이나 관련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참여의 기회는 제한적이었으며 이들의 의사와 직접적인 관심이 유적의 관리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로 유적의 관리계획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계획의 효율성이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유적의 확인과정에서부터

유적의 평가, 정책 수립, 실천방안 수립, 그리고 모니터링에 이르는 유적관리 계획 수립의 전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참여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앞에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자국의 문화유적의 관리를 위한 기본헌장이나 준칙을 제정하여 유적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적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가차원의 소위, '한국문화유적관리준칙'을 시급히 마련하여, 우리 문화유적의 고유한 특징과 우리나라의 여러 상황에 맞는 기준과 개념, 그리고 실천 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의 마련과 세부계획 수립, 그리고 실천과정에서의 충실한 이행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유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왕직, 이상해, 2002. 「목조건조물문화재의 보존 이론에 관한 연구-일본 건조물문화재의 수리 이론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한국건축역사학회) 11권 3호 통권 31호, 35-51.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2004. 『광주 분원리 도요지 복원·보존을 위한 장기 종합 마스트 플랜』.
- 문화재청, 2002.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문화재청, 41-171.
- 이영경, 민창기, 1998년. 「경관경험의 향상을 위한 문화·역사 지역의 경관계획 및 관리에 대한 연구: 경주시 문화재와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한국조경학회)26(2), 155-165.
- 인제대학교 김해발전전략연구원, 2000. 『봉황대유적과 대성동고분군의 정비 방안 연구』.
- 오창섭, 2001. 「경주시 고도 보존과 주민 이해조정의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13(3), 205-225.
- 한국관광연구원, 2001. 『고가·종택·전통마을의 보존적 관광자원화 방안』, (서울:한국관광연구원), 22.
- 홍성근, 충청남도문화역사원, 2004. 『홍주성 복원 기본계획』.
- Aldridge, Don, 1989. How the Ship of Interpretation was Blown Off Course in the Tempest: Some Philosophical Thoughts. *Heritage Interpretation: The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Volume 1)*, (David L. Uzzell, ed.) (London and New York: Belhaven Press), 64-87.
- Byrne, Denis, 1991. Western Hegemony in Archaeological Heritage Management. *History and Anthropology* 5: 269-276.
- Byrne, Davis. 2004. Chartering Heritage in Asia's Postmodern World, GCI Newsletter 19.2
http://www.getty.edu/conservation/publications/newletter/19_2/news_in_con1.html.
- Cleere, H.F.. 1989. Introduction: the rationale of archaeological heritage management. *Archaeological Heritage Management in the World*(Henry Cleere,ed.) (London: Unwin Hyman), 1-19; Sullivan, Sharon. 1993. Conservation Policy Delivery. *Cultural heritage in Asia and the Pacific: Conservation and Policy: Proceedings of a Symposium held in Honolulu, Hawaii, September 8-13, 1991*,(G.H. Mac Lean,ed.) (Marina del Rey: 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15-26.
- English Heritage, 1997. *Sustaining the Historic Environment: New Perspectives on the future. English Heritage Discussion Document*.(London: English Heritage).
-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2000. *Values and Heritage Conservation*.(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 LA).
- Han, Sangwoo, 2001.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in South Korea,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 Kerr, James Sempler, 1985. *Establishing Cultural Significance?*. ACT Heritage Seminars, Canberra, Australia.
- Lipe, W.D., 1984. Value and meaning in cultural resources. *Approaches to the archaeological heritage; a comparative study of world cultural resource management system* (Cleere, H.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1.
- Luxen, Jean-Louis, 2004. Reflections on the Use of Heritage Charters and Conventions, *GCI Newsletter* 19.2.
<http://www.getty.edu/conservation/publications/newletter/19.2/feature.html>.
- Mason, Randall, 2002. Assessing Values in Conservation Planning: Methodological Issues and Choices. *Assessing the Values of Cultural Heritage* (Marta de la Torre. ed.)(LA:Getty Conservation Institute) 5-30.
- McArthur, Simon and C. Michael Hall, 1993. Visitor Management and Interpretation at Heritage Sites. *Heritage Management in New Zealand and Australia: Visitor Management, Interpretation and Marketing*, (C. Michael Hall and Simon McArthur.e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8-39.
- Ndoro, Webber, 2001. Heritage Management in Africa. *GCI Newsletter* 16(3).
http://.getty.edu/conservation/publications/newsletters/16_3/new
- NSW Heritage Office, 2004. *Heritage & Sustainability: A Discussion Paper*, NSW Heritage Office, Australia.
- , 2001. *Assessing Heritage Significance*. A NSW Heritage Manual update, Australia.
- Rolfe, John and Jill Windle, 2003. Valuing the Protection of Aboriginal Cultural Heritage Sites, *The Economic Record*, 79. S85-S95.
- The World Bank, Environment Department, 1994. *Cultural Heritage in Environmental Assessment*. Environmental Assessment Sourcebook Update.
- Uzzell, David L., 1989. The Hot Interpretation of War and Conflict. *Heritage Interpretation: The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 (Volume 1)*, (David L. Uzzell, ed.) (London and New York: Belhaven Press) 33-47.

A Study on the Planning of Cultural Heritage Sites Management

Han, Sangwoo,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 basic concepts and a series of individual processes for the planning of cultural heritage sites management in order to establish effective cultural heritage sites management plans in South Korea. In order to producing effective cultural heritage sites management plans, South Korean cultural heritage managers should give emphasis on the conservation of intangible meanings and values of the site as well as physical conservation, which is usually emphasized in Western conservation concept, according to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al heritage sites.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give attention on the utilization of cultural heritage sites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education and cultural tourism, as well as site conservation and protection.

For the planning for a cultural heritage site management, a series of individual processes should be planned and implemented well. This involves such processes; identification, assessment of cultural significance, design of management policy, design of management practice, and finally, management monitoring system for evaluation and revision of the plan. Each process has own importance itself to make an effective management plan and should be dealt equally.

Public participation in each process is very important in planning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plan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required process. Finally, it is also required to prepare a 'Korean cultural heritage site management charter (principles)' to be used as a guideline for the planning of effective and comprehensive cultural heritage sites management plans in South Korea like other many countries.

[Key word] Cultural Heritage Site, Conservation, Cultural Heritage Management, Cultural Heritage Policy, Interpretation